

여주(驪州)의 토지이용, 생활공간, 생활실태의 변화

손용택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부교수, sohn@aks.ac.kr)

본 연구는 수도권 농촌지역인 여주 지역의 토지이용 변화, 생활공간 변화, 생활실태의 변화 등을 살피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생활공간의 사례를 살피 지역성을 규명코자 농촌성격이 강한 지목(예; 전, 답, 임야)과 도시적 성격이 강한 지목(대지, 공장용지, 도로용지 등)의 필지변화와 면적변화를 중심으로 토지이용의 변화를 살폈고, 지형도를 통해 과거의 마을에 비해 변해버린 생활공간을 추적하였다. 설문지 조사를 통해 주민생활의 실태를 살폈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91년-01년 간 약간의 등락은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둘째, 읍, 면별 단위 지역에 따른 다소 불규칙성은 인정되지만 농업적 토지이용(전, 답, 임야, 과수원, 목장용지 등)은 약간씩 줄어들고, 도시적 토지이용(대지, 공장용지, 도로, 유원지, 체육용지 등)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를 통해 도시화가 완만히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가장 급속히 변한 것은 교통로의 발달이고, 이로 인한 주거 생활공간(마을)의 입지 변화가 괄목할 만하다. 수운교통이 쇠하고 육로교통(고속도로 등)이 발달함에 따라 큰 나루터 취락(여주읍)은 현대적인 다리로 연결성이 양호해지면서 더욱 확대된 시가지의 모습으로, 작은 나루터 취락은 쇠퇴하여 과거의 흔적을 겨우 확인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불편한 산간의 내륙마을도 교통이 편리한 읍내 등으로 빠져나가고 흔적만 확인되는 작은 마을로 변한 것 등이 그것이다.

넷째, 도시화가 더딘 마을에서는 이농 현상이 두드러져 농촌 마을의 인구가 줄어들고, 동시에 폐농가와 폐농지가 나타났다.

다섯째, 반대로 도시화 속도가 상대적으로 속도를 가지고 진전되는 단위 지역의 마을들에서는 도자기 체험장, 예절교육장, 인터넷 주문 농작물직판, 인공낙시터, 농장 가두매점, 농장 문전판매 등 관광농업성 관련 기능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여섯째, 응답한 마을 가운데 80% 이상이 농업소득보다 겸업소득이 높은 마을로 나타나 겸업활동이 활성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곱째, 농촌사회의 걱정거리로 가장 크게 부각되는 것은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한 농업활동의 무력해지고 있다는 응답이 비교적 큰 비중(62%)을 점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재 살고 있는 마을이 마음편히 정붙이고 살만한 곳이라고 생각된다면 무엇 때문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오랫동안 정들어서 서로 의지하고 살 수 있는 좋은 이웃이 여전히 있기 때문이라는 답(53%)이 가장 많았다. 그밖에 공기 맑고 푸른산이 많으며, 맑은 물이 흘러 살기 좋다는 답(47%)이 뒤를 이었다.

요약컨대, 여주 지역은 수도권의 외척 접지에 해당하는 곳으로 농촌적 성격과 도시적 성격이 혼재하는 곳이며, 도시화의 속도는 완만한 편이다. 도시화의 가속도가 붙기 직전의 가변적 지역이라 할 수 있으므로 교통의 발달에 따른 도시화의 급물살을 대비한 도시계획이 제대로 수행될 때 쾌적한 도시지역으로 변모해 갈 것으로 기대된다.